

Date: 7 Elul 5786 (August 20, 2026)

Torah Portion: Ki Tetze

Topic: 자비와 연합, 제 3 부

이는 또한 **실루아흐 하켄(shiluach hakein, 어미 새를 날려 보내는 계명)**과 **이스라엘인 종의 해방** 사이에 존재하는 미드라시적(Midrashic) 연관성을 설명해 줍니다. 종을 소유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시험을 야기합니다. 토라는 주인에게 종의 존엄성과 형제애를 기억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지만, 부와 독립성,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점차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종을 고난에 처한 형제로 인식하며 시작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단순히 종으로만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위험합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주인은 종의 고난보다 자신의 우월함과 편의에 더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마침내 종을 해방해야 할 때가 오면, 종의 노동력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Yirmiyahu) 34 장은 백성들이 바로 이 책임에 실패했을 때 맞이한 비극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루아흐 하켄을 통해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다르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이 자비에 의해 절제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토라가 그에게 어미 새와 새끼 사이의 유대를 알아보라고 가르친다면, 하물며 자신과 동료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유대는 얼마나 더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형제애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가난도 형제애를 지울 수 없습니다. 종의 신분도 형제애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미츠바(mitzvah, 계명)는 또 다른 미츠바를 준비시킵니다. 어미 새를 자비롭게 날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미드라시가 밝힌 세 가지 보상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해방(놓아줌)***이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 통합됩니다.

어미 새는 착취당하는 대신 놓여납니다.

종은 영원히 소유되는 대신 해방됩니다.

엘리야(Eliyahu)는 분열과 이별로 상처 입은 관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옵니다.

메시아(Moshiach)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다윗 왕국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Yerushalayim)은 다시 자녀들을 맞이하며, 마치 어머니가 품에 자식을 모으듯 그들을 위로합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새 둥지 곁에서 시작된 일이, 궁극적으로는 온 백성의 치유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루아흐 하켄의 계명은 **구속(Redemption)이 일상의 작은 선택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의 세상은 회복된 유대의 세상이지만, 그러한 유대는 누군가가 잔인함을 거부하고, 이기심을 억제하며, 다른 피조물의 취약함을 인식하고, 자비를 선택할 때마다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미 새를 날려 보내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의 고립된 계명을 성취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임할 구속의 성품 그 자체를 축소판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관심 대신 자비를, 단절 대신 연결을, 우월감 대신 형제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야훼(YHWH)의 창조 세계 안에서 연합을 강화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받는 법(Measure for measure)에 따라 그는 궁극적인 위로—즉 엘리야의 오심, 이스라엘의 모임,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 다스림 하의 다윗 왕국 건설—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겉보기에 소박해 보이는 계명에 붙여진 약속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 둥지 곁에서 베푼 작은 자비의 행동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유배(Exile)를 벗어나 구속을 향해 나아가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Shalom.